

광주 양산·연제 '新주거지' 부상

첨단 2단계사업·합동청사 등 개발 호재 광주 전지역 30분내 이동 교통여건 완벽

광주 첨단지구와 인접한 북구 양산·연제·신용동 일대가 신촌 '베드타운(Bed Town)'으로 부상하고 있다. 최근 '광주 첨단2단계 개발 사업' 등의 영향으로 과거 광주의 '외곽지역'에서 '신 주거지'로 각광받고 있다. 특히 양산·연제동 일대는 각종 개발 호재가 쏟아지고 있는데 교통여건 및 편의시설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토지공사 광주전남본부는 지난 4일 '첨단2단계' 개발사업 현장 개소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갔다. 첨단2단계 사업은 공업지역 73만3천㎡(36%), 주거지역 44만㎡(22%), 녹지지역 28만6천㎡(14%) 등으로 조성되며, 2010년 10월 준공 예정이다. 이 곳에는 광산업과 디지털정보가전산업 등이 집중 배치돼 지역 첨단산업의 메카로 자리잡게 된다.

북구 교통동에 들어설 '광주·전남 지방합동청사'도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오는 2009년 12월 청사가 완공되면 인근 상권의 활성화는 물론, 정부기관의 복합행정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곳에는 광주국제청, 광주본부세관, 광주지방노동청 등 9개 기관의 직원 500여명이 상주하게 된다.

이에 따라 '첨단2단계' 사업지는 물론, 인근의 양산·연제동 일대가 새로

운 주거지로 관심을 끌고 있다. '첨단2단계'와 '지방합동청사' 등의 호재 속에 지속적인 교통망 확충 등으로 정주여건이 크게 개선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양산·연제동의 경우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갖춰가고 있다. 이 곳은 지난해 개통된 장성~담양 호남고속도로의 북광주IC와 기존의 서광주IC를 잇는 도로가 개설되고 있다. 이 도로가 완공되면 광주 전 지역이 30분 내에 이동이 가능하고, 호남



·서해안고속도로 등 광주 외곽으로의 진출입이 용이해진다. 개발 호재로 인한 주택수요 증가에 따라 주택건축도 활기를 띠고 있다. 선두주자는 대주건설로, '연제1차 피오레' 아파트에 이어 최근 '연제2, 3차 피오레'를 공급하고 있다. '연제 피오레'는 총 1천238세대의

대단위 단지인 데다 2, 3차의 경우 3.3㎡당 분양가가 각각 495만원, 517만원으로 최근 분양 단지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월등하다. 원금보장제, 마감재업그레이드 등 다양한 분양혜택도 강점이다.

GS건설도 최근 신용동에 '첨단자이' 1천140가구를 분양하는 등 아파트 신축이 줄을 잇고 있다. '첨단자이'는 첨단지구(1만세대)와 양산지구(7천세대) 등 대규모 택지지구와 인접해 있다. 여기에 양산·연제동 일대는 입주민들의 전원형 생활이 가능하다는 감점이다. 이 일대는 그동안 타 지역에 비해 개발이 더디게 진행됨에 따라 주변 녹지 등 환경이 잘 보존돼 있다. /최경희기자 choice@kwangju.co.kr



'광주 첨단2단계' 사업 부지 일대 양산·연제동에 대주건설 등 건설업체의 아파트 공급이 잇따르고 있다. 이 일대는 '첨단2단계' 및 '광주·전남합동청사' 등의 개발 호재로 인해 신촌 주거지로 급부상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기아 "올 내수점유율 30% 돌파"

모닝·모하비 들풍 여세 이어 9월 소울 등 신차 속속 출시

기아자동차가 모닝·모하비 등 5개의 신차와 함께 오는 9월 광주공장에서 출시될 소울(SOUL) 등에 힘입어 올해 국내시장에서 '점유율 30% 돌파'에 도전할 태세다.

6월 업계에 따르면 기아차는 지난 1월 올해 사업계획을 발표하면서 내수 점유율 목표를 25.3%로 제시했으나, 국내 판매를 총괄하는 국내영업본부에서는 이보다 높은 30%를 내부 목표로 설정한 상태다. 2003년 23.8%, 2004년 23.0%, 2005년과 2006년 각 23.3%, 지난해 22.3% 등의 내수 점유율을 기록한 점으로 미뤄 기아차로서 '점유율 30%'는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수치일 수도 있다.

기아차 내부에서도 공급 물량의 한계, 경쟁업체들의 강력한 견제 등으로 이 같은 목표달성은 어려울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러나 기아차는 올초 판매 상

승세와 함께 연초 모닝·모하비 등 2개의 새 모델이 나오면 이어 6월부터 줄줄이 3개의 차종이 출시된다는 점에서 적지않은 기대를 거는 눈치다.

기아차는 지난 1월 점유율 22.6%에 그쳤으나 2월에는 모닝의 판매증가로 26.1%를 기록했다. 작년 월간 기준으로 살펴볼 때 내수 점유율 25%를 넘은 적이 없었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수치인 셈이다.

나아가 기아차는 앞으로 내놓을 3종의 신차가 소위 '판매주력 모델'이라는 점에서 향후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기아차는 오는 6월 중순경 외관 디자인 등을 대폭 변경한 중형세단 로체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내놓는데 이어 8월에는 준중형세단 세라토의 후속모델을, 9월에는 소형 크로스오버차량 소울(SOUL)

를 각각 출시한다.

기아차는 로체의 디자인과 사양을 고급화함으로써 '형제차'로 불리는 현대차 쏘나타와 확실한 차별화에 나서는 동시에 중형세단 시장에서 GM대우 토스카, 르노삼성 SM5를 추월한다는 전략이다. 로체는 지난 1월과 2월 국내시장에서 2천대, 2천149대 팔려 판매량이 토스카와 SM5에 못미쳤다.

이와 함께 기아차는 새 준중형세단을 선보임으로써 현대차 아반테의 아성에 도전한다. 기아차는 '초심'으로 돌아와 준중형세단 시장을 공략한다는 차원에서 '세라토'라는 이름을 버리고 새 이름으로 차를 내놓을 계획이다.

또 국내 시장에서는 처음으로 선보이는 차급인 소울을 통해 'RV명가'로의 명성을 이어가는 동시에 특세장을 공략할 방침이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삼호重, 옥상 건조 사상 최대

7월부터 16만5천t급 배 만든다

영암군 삼호읍에 위치한 현대삼호중공업이 옥상 건조 사상 최대 규모인 16만5천t급 선박을 만든다.

현대삼호중공업은 10일 "오는 20일 준공되는 옥상건조장에서 7월부터 사상 최대인 16만5천t급 선박 건조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

다. 옥상 건조공법은 도크에서 선박을 건조하는 방식과는 달리 옥상에 선박을 건조해 로드아웃 시스템(Load-out System)을 이용해 해상 플로팅

다. 플로팅 도크를 갖춰 오는 20일 준공한다. 현대삼호중은 12일부터 3일간 골리앗 크레인 인양작업과 로드아웃, 플로팅 도크 시험가동을 거쳐 본격적인 옥상 건조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편 현대삼호중은 이 옥상 건조장에서 올해 2척, 2009년 9척, 2010년 12척의 선박을 각각 건조할 계획이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금호, 동남아 육로 운송 '내손안에'

베트남 하노이에 두번째 합작사 설립 네트워크 구축

금호고속이 동남아시아 육로운송 네트워크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금호고속은 10일 베트남 하노이에 위치한 대우호텔에서 이원태 사장장과 베트남 민영 여객운송업체인 비엠탄 사 응웬 호 하이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해외 14번째 합작회사인 '금호비엠탄 익스프레스 버스라인'의 설립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금호고속은 베트남의 수도이자 베트남 북부시장의 중심인 하노이에 베트남내 두 번째 합작회사를

설립하게 됐으며 지난해 11월 베트남 남부 호치민에 설립한 '금호 삼코 익스프레스'와 함께 베트남 전역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이번에 설립되는 합작회사의 자본금은 400달러이며 지분율은 금호고속 49%, 비엠탄 51%로, 초기 35대의 대형버스를 투입해 공항~노이 도심간 공항버스노선과 하노이~툰베이 노선 등을 운행할 예정이다.

향후 중국 톈진과의 연결지역인 라오스까지 노선도 운행할 계획이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혈당측정 '아큐-체크 퍼포마' 출시



최근 2년간 혈당 측정기 국내시장에서 1위를 지켜온 아큐-체크 신제품 '아큐-체크 퍼포마'를 출시했다. (사진) 아큐-체크 퍼포마는 반도체 등 정밀부품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되는 골드를 검사지에 사용해 혈당측정의 정확도를 한 단계 높인 신제품이다. 6개의 골드 전극을 통해 주변 온도와 습도, 검사지 이상유무 등 체크해 적은 혈액량으로도 5초만에 혈당을 측정할 수 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롯데백화점 광주점 서비스 명장 선정

의류 박희진·비의류 강지인씨

롯데백화점 광주점 소속 박희진(의류부문·마인), 강지인(비의류부문·존슨앤존슨) 슌매니저가 서비스 명장으로 선정됐다.

롯데광주점(점장 구수희)은 지난해 1년간 전 직원의 서비스 업적을 평가, 이들에게 서비스 명장과 해외여행권,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서비스 명장

제는 지난해부터 롯데백화점 전국 점포에서 시행되고 있다.

구수희 점장은 "서비스 명장제는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소속감을 높여주고 고객서비스를 한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전남 농·축협 조합원 출자금 2,253억

작년 1인 평균 90만원

전남지역 농·축협 조합원들의 출자금은 2천253억원, 1인당 평균출자금은 90만6천원이었다. 이들 조합이 지난해 각종 배당과 교육지원사업비를 통해 환원한 금액은 937억원으로, 이를 조합원 1인으로 환산할 경우 26만 1천원에 달했다.

이같은 환원율은 조합의 1년 만기 정기예탁금 평균금리를 감안할 때 6배 가량 높은 수준이며, 전남지역 농·

축협들이 조합원에 대한 출자배당 뿐만 아니라 조합원에 대한 영농지원과 편의제공 확대에 적극 노력한 결과로 풀이된다.

환원금액 937억원의 경우 출자와 이윤고 배당 287억원, 특색사업지원 등 환원사업 39억원, 조합원의 영농 및 생활지도와 교육사업 451억원, 기타 복지지원비 등 160억원이었다.

특히 4천629명의 조합원 자녀들에게 21억원의 장학금을 지원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모하비 국내 과외 관광 여행사

호텔의역행사 장사의날행사

모하비 여행사

청하

신속활장개업 일식요리의 명가

대구·소면회 / 상견례 / 각종 모임 및 집대 단체환영 / 주차장완비

청하 223-7037 / 224-5002